

4 칼빈의 개혁정신과 사회복지 실현

배경식 교수 / 한일장신대학교 조직신학



1. 들어가는 말

2009년은 칼빈출생 500주년을 맞는 해였다. 칼빈이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끈 제네바에서는 칼빈출생 500주년을 맞아 4월부터 11월까지 칼빈의 유품전시회가 대대적으로 열렸으며, 5월 말에는 대대적인 국제 세미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한국에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행사가 칼빈 세미나와 칼빈의 흥상 제작, 그리고 칼빈학자 시상 등 많은 행사들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¹⁾

호남지방 역시 미국 남장로교 호남 선교의 모체가 되는 서문교회당

1) 종회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칼빈출생 500주년 기념사업은 서울교회에서 이종윤 목사의 주관하에 진행되었다. 전야제의 성격을 띤 기념음악회와 예배, 각 분야별 세미나, 그리고 한국교회의 칼빈 신학강의에 공연한 분들에게 시상을 하였다. 수상자들은 이종성, 한철하, 정성구, 이수영 목사 등이다. 「한국기독공보」, 6월 11, 18일자 참조.

에서 2009년 6월 14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 모든 장로교 교회들이 교파를 초월하여 평소 칼빈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의 목회자와 학자들을 모아 칼빈의 성경적인 신앙과 신학을 나누어 보았다. 그 내용은 예전과 설교, 교육, 경영 등이었다.²⁾ 이 일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전북 지역 칼빈출생 5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만들어 강사선정과 강의 자료집 제작, 그리고 칼빈 상징 로고가 새겨진 시계를 만들어 제공하였다.

제주도에서는 제주 장로교단연합회가 주관하여 “칼빈신학 재무장 선교 2세기 열자”라는 주제하에 제주신학 포럼을 갖게 되었다.³⁾ 주제는 칼빈의 신학과 목회실천, 그리고 구약성경 해석 등이었다. 이렇게 그를 세계적으로 기린 것은 칼빈은 독일의 루터를 이어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곳으로 피난 온 프랑스 개신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목회를 하면서 제네바를 개혁한 종교개혁자이기 때문이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그의 목회경험에서 나온 자신의 신학을 집대성한 책이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그의 개혁정신과 사회복지 사역의 근거를 교회의 직제와 교육, 그리고 개혁을 진행시킨 기구 등에서 찾아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칼빈의 상징인 그의 휘장(Emblem)을 보면 그의 오른손에 불타오르는 심장이 쥐어져 있음을 보게 된다. 이불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에 의한 불꽃이다. 그리고 이 상징을 원으로 감싸는 주위에는 “주님의 사역은 신속하고 성실하게”(Promte et sincere in opere Domini)라고 새겨져 있다. 이를 재해석해 보면 칼빈의 개혁정신은 주

2) 칼빈출생 5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칼빈의 신학과 한국교회(전주 : 전주칼라인 쇄소, 2009). 전북 지역의 칼빈 500주년 기념세미나는 ‘칼빈의 예배와 신앙운동’ 그리고 ‘칼빈의 신학과 사상’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3) 제주도에서는 비전교회에서 6월 22, 23일 칼빈을 신학과 목회실천, 그리고 구약성경 해석의 차원에서 재조명하는 모임을 가졌으며 24일에는 제주지역 장로교 연합예배를 드렸다. 참조 : 「제주기독신문」, 2009년 6월 27일자.

넘이 맡겨 주신 사역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일생 동안 시행했다는 말이 된다. 이러한 개혁정신을 주도해 나갈 때 외부적으로는 가톨릭의 교권 중심적인 공격적인 신앙과 무신론자들의 거센 반발, 내부적으로는 법과 질서를 무시해 버리는 열광주의자들과 재침례파들의 반개혁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내야 했다. 제네바에서의 칼빈의 개혁은 거친 광야의 외침 그 자체였으며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이루어 낸 주님의 거룩한 지상 과제였다.

칼빈은 일반적으로 그의 주 저서인 「기독교 강요」를 통해 종교개혁의 기초를 제공한 사람이며 장로교의 교리를 제정한 저술가와 신학자로만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여정을 살펴보면 철저한 인문주의자로서 신앙을 그의 삶 속에서 실천한 목회적 교육자임을 알게 된다. 동시에 그는 파렐과 함께 제네바에서 추방을 당하면서까지 종교와 사회의 개혁을 단행할 때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 설교, 그리고 제네바 성시화를 통해 경건실천에 입각한 성경적인 사회복지의 일들을 실현하였다.

2. 개혁의 시발점과 경과

1534년 마르쿠트(Antoine Marcourt)가 미사를 반대하는 조문들을 불인 사건이 있은 후 프랑스 I 세가 개신교도들을 팝박하기 시작하였다. 칼빈은 이를 변호하기 위해 프랑스 I 세에게 복음주의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현정하는 글을 첨부하여 1536년 바젤에서 라틴어로 기록된 「기독교 강요」(*Institutio religionis christiana*) 제1판을 출판하였다. 이 책의 본문은 총 6장으로 조직이 단순하며 분량도 많지 않았다. 그 내용은 율법, 신앙, 기도, 참된 예전과 거짓 예전, 기독교의 자유 등이었다.⁴⁾

칼빈은 이 책에서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가

르쳤다. 정확한 지식은 성경에서만 주어지는데 성경을 읽는 신자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증거는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보증된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인생의 처음 가는 목표이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선과 악의 구별능력을 상실한 인간은 완전한 선행을 할 수 없으며 그러므로 인간의 어떠한 행위도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공로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만일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정당하게 판단했을 것이며, 양심은 선과 악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감각 그대로였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의 부패로 인해, 인간은 자신에 대한 판결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한다.”⁵⁾ 전 인류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죄 값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성령의 역사이다. 칼빈의 “행위로서는 아니지만 행위 없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다.”(We are justified not without, and yet not by works.)는 말은 칼빈의 독특한 표현으로서 신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뜻을 성취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⁶⁾

4) 칼빈은 이 책을 죽기 전까지 계속 손질하였다. 1539년, 1543년, 1550년 개정판과 프랑스 번역판, 1559년 최종판에서는 그 내용이 충실히 정돈되고 분량이 증가하였다. 참조 : 이종기, 「교회사」, 신학총서 7 (서울 : 세종문화사, 1976), 289쪽.

5) 중인, David L. Foxgrover, *John Calvin's Understanding of Conscience*, 22, 정홍렬, 「칼빈의 양심론 연구」(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16쪽 이하. 칼빈은 그의 「요한복음주석」 1:5에서 인간의 부패된 본성에 남아 있는 빛의 중요한 두 부분을 종교의 씨앗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양심으로 보았다. 참조 : *Calvin's Commentaries,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1-10*, T. H. L. Parker(Tran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Grand Rapids, Michigan, p. 12. There are two main parts in that light which yet remains in corrupt nature. Some seed of religion is shown in all : and also, the distinction between good and evil is engraven in their consciences.

6) 윌리스턴 워커, 강근호 외 공역, 「세계기독교회사」(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76), 297쪽 이하.

그가 이탈리아의 여행 후 제네바에 들렸을 때 그곳에서 종교개혁을 하던 파렐(Guillaume Farel, 1489-1565)을 만나게 되었다. 파렐은 칼빈에 비해 40세가 더 많은 사람이었으나 「기독교 강요」의 저자인 칼빈이 제네바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칼빈을 찾아가 함께 개혁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는 자신의 간청으로써는 칼빈을 설득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알고 드디어 저주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너는 너의 학문으로 평생 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네가 만일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실 것이니, 이는 네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않고 오직 너 자신만을 위해서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⁷⁾ 칼빈은 이 저주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고 한다.

파렐에게서 설득을 당한 칼빈은 제네바에 머물면서 성서 해석자와 설교자로 일을 하게 되었다. 파렐과 함께 베른(Bern)이나 보드(Vaud), 그리고 로잔(Lausanne)에까지 자신들이 결정한 종교개혁을 확립하도록 하였다. 이들의 개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찬식을 매달 행하며⁸⁾ 감독자들은 성찬에 합당치 않은 자들을 찾아내어 출교를 시킨다. 둘째, 교리문답을 만들어 아동교육을 시킨다. 셋째, 신조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부과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형식적이며 교회중심적인 과거의 가톨릭 신앙에서 실제적이며 개인의 신앙을 강조하는 개신교신앙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제네바의 소의회는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수정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 일은 1538년 200인의 회에서 거센 반대에 직면하여 그해 4월 칼빈을 비롯한 제네바의 목사들

7) 참조 : 김재성, 상계서, 208쪽. 이종기, 상계서.

8) 칼빈은 성찬식이 매주일 예배 시에 행해지기를 바랐다. 그것은 적어도 세 가지의 유익을 준다. 우선 죄의 용서를 나타내는 상징이자 표이며,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보여 주며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에 연합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 주의 만찬은 기독교적 삶의 증진과 경건생활에 도움이 된다. 참조 : 존 H. 리스, 이용원 역, 「칼빈의 삶의 신학」(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182쪽.

은 제네바에서 추방을 당하였다.

칼빈은 마틴 부처(Martin Bucer, 1491–1551)의 초청으로 슈트라스부르크에서 프랑스 피난민 교회의 목회를 하였으며 1539년 「기독교 강요」의 중보판과 「로마서 주석」을 출판하였다. 그러한 어간에 1541년 제네바와 베른과의 조약체결에 관한 내부 갈등이 생겨 칼빈은 다시 제네바 시의회의 부름을 받아 오게 되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개혁이 시작되었다.

칼빈은 제네바에 돌아오자 곧바로 「교회법령」을 작성하였다. 교회의 네 직임은 목사, 교사, 장로, 집사이며, 장로는 소의회에서 12명을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이들은 목사와 함께 당회(Consistoire)를 구성하였다. 당회에서는 권징의 문제를 취급하였으며 권고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출교하고 죄가 무거우면 시 당국에 넘겨 처벌을 하였다. 칼빈은 제네바가 초대교회 기독교 공동체의 모델이 되기를 원했다. 제네바에는 많은 프랑스의 난민들이 몰려왔으며 그 이외에도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도 왔다.

칼빈의 개혁활동은 다시 도전을 받게 되었다. 개혁의 엄격성에 반대하는 자유주의자들과 외부인들의 영향력에 두려움을 갖던 본토인들의 도전이었다. 칼빈 신학에 대한 비판은 볼섹(Jerome Bolsec)에 의해 되었는데 “칼빈의 예정설은 하나님을 죄의 원인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1553년 칼빈의 반대파들이 선거에서 우세하였으나 “삼위일체론과 유아세례를 비판하는” 세르베투스 사건이 터져 그가 화형당함으로써 자유주의자들의 기가 꺾이게 되었다.

1554년 선거에서 네 명의 행정장관 가운데 3명이 칼빈의 지지자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듬해에는 시 평의회에서 절대다수의 의석을 차지하였다.⁹⁾ 이후부터 칼빈의 개혁운동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제네바를 방

9) 참조 : 김재성, 『상계서』, 116쪽.

문한 존 낙스의 표현은 이를 반증해 준다. “여기에 사도시대 이후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의 학교가 있다. 나는 이곳보다 도덕과 신앙이 향상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제네바의 정치는 안정되었으나 그의 건강은 악화되었다. 그는 여러 가지 질병을 겪으면서 구슬하여 저작활동을 하였다. 1564년 5월 27일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그의 사상은 그의 저작들과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은 유학생들을 통해 영국과 스코틀랜드를 포함한 전 유럽으로 확산되었다.

3. 칼빈의 사회복지에 관한 선행연구

칼빈은 1536년 파렐의 권유에 의해 그와 함께 제네바 개혁을 시작한 이래 28년간의 개혁적인 목회생활을 했다. 그의 목회생활을 시대별로 구분하면, 처음 제네바에서의 2년은 목회 준비와 실험 단계, 그 후 슈트라스부르크에서의 3년은 목회의 실천 단계, 그리고 1541년부터 1564년 까지는 제네바 후기 목회활동이라고 하며 이때가 바로 23년 어간에 걸친 완성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그의 개혁은 제네바시에서 ‘거룩’을 전제로 교육과 행정, 정치와 종교 전반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전개되었다. 칼빈은 그 도시를 ‘신성한 도시’(holy city)로 탈바꿈을 시키기 위해 제네바시에 거주하던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하여 어른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형식적이며 죽은 신앙을 살아 있는 실천적인 신앙으로 전환시키는 것에 최대의 역점을 두었다.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그 목표는 전인적 인간 삶의 질의 향상과 행복 추구인 안녕을 지향하는 데 있다. “전인적 안녕이란 인간의 신체·심리·영성의 총체의 통합된 상태를 말한다.”¹⁰⁾ 칼빈은 분명 자신의 개혁을 통해 정치와 교육, 경제와 신앙생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복지 실현

을 추구한 전인적 목회자였다. 특히 그의 개혁운동과 함께 제네바를 향해 각국에서 몰려들던 피난민들(refugees)은 사회복지 대상자들이었다.

칼빈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사의 사용에 대해 인체의 각 기관들이 갖는 유기적인 관계를 예로 든다. 인체의 어느 기관도 자신을 위해 그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다른 기관들을 위해서 사용될 때 각 기관은 자체 능력으로부터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이렇게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을 돋도록 맡겨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각자 청지기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청지기직은 사랑의 척도에 의해서만 측정될 수 있다고 한다.¹¹⁾ 하나님의 은사가 창조주에게 바쳐질 때 거룩하게 되며, 그렇지 않으면 부패한 낭용이 된다. 이것은 철저한 자기부정을 의미한다.

칼빈의 신학에 대한 평가는 매우 다양하다. 심지어 칼빈을 신화적 인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¹²⁾ 이러한 가운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칼빈의 사상을 사회공동체의 윤리인 이웃사랑의 실천과 나눔의 원리로 해석하기 시작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니콜라스 월터스트로프(N. Wolterstroff)이다. 그는 칼빈의 신학을 ‘사회적 희생자들에 대한 눈물의 신학’(Theology of the Tears for Social Victims)이라고까지 평가하였다.¹³⁾

칼빈의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를 본격화시키는 논문은 1971년 로버트

10) 이병진, “이상적 인간과 사회사업”, 중인 : Myers, Sweeney & Witmer, 2000, 한일장신대 기독교종합연구원, 「신학과 사회」, 2007년 제27집, 102쪽.

11) Ins., III, vii, 5, p. 325.

12) 참조 : 이근삼, 「칼빈, 칼빈주의」(서울 : 도서출판 앰마오, 1998), 13쪽. 칼빈의 별명들은 ‘울며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찾고 있는 귀신’(Slobbering Ogre), ‘이기적 광신주의자’(The Egoistic Fanatic), ‘교리적 인간 증오자’(The Doctrinaire Misanthrope), ‘악마적 신과 같이하는 비인간적인 독재자’(The Inhuman Dictator with a Develish god) 등이었다.

13) Nicholas Wolterstroff, “The Wounds of God : Calvin’s Theology of Social Injustice”, *Reformed Journal* 37(1987), p. 14.

킹던(R. Kingdon)의 “칼빈의 제네바에서의 사회복지”(Social Welfare in Calvin’s Geneva)이다.¹⁴⁾ 이후 1979년에 편집된 「칼빈과 칼빈주의 : 민주주의의 근원」(Calvin and Calvinism : Sources of Democracy?)이라는 책이 출간되었는데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는 사회복지 사상이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¹⁵⁾ 그는 1982년 “칼빈주의와 사회복지”(Calvinism and Social Welfare)라는 논문을 「칼빈신학 논문집」(Calvin Theological Journal)에 수록함으로써 칼빈과 사회복지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계속해서 그는 1984년에 “집사직에 관한 칼빈의 사상들”(Calvin’s Ideas about the Diaconate)과 “칼빈과 제네바 정부”(Calvin and the Government of Geneva)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¹⁶⁾

이어서 1984년 더글拉斯의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대한 칼빈의 관련성 연구”(Calvin’s Relation to Social and Economic Change), 프린스턴 칼빈 연구가인 맥키의 “봉사직과 의식적 구제에 관한 칼빈”(John Calvin on the Diaconate and Liturgical Almsgiving)이 발표되어 사회복지 연구의 이정표가 되었다.¹⁷⁾

칼빈 연구는 “이자와 빙곤”, “현대 민주주의”, “기독교 사회봉사와 구제”, 그리고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엮어 편집한 책이 「칼빈과 칼빈주의에 관한 논문들」

14) Robert M. Kingdon, “Social Welfare in Calvin’s Geneva”,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76,(1971), pp. 50–69.

15) Robert Kingdon & Robert D. Linder, eds., *Calvin and Calvinism : Sources of Democracy?*(Lexington : Heath, 1979), p. 180.

16) Robert Kingdon, “Calvin’s Ideas about the Diaconate”, Cather Indberg, ed., Piety, Politics and Ethics : 16th Century Journal, Pub.(1984), pp. 167–180 ; Robert Kingdon, “Calvin and the Government of Geneva”, Wilhelm Neuser, ed., *Calvinus Ecclesiae Genevensis Custos*, (Frankfurt am Main, 1984).

17) J. D. Douglas, “Calvin’s Relation to Social and Economic Change”, *Church and Society*, Vol. 74(1984), pp. 75–81 ; Elsie A. McKee, “John Calvin on the Diaconate and Liturgical Almsgiving”, (Geneve : Libray Droz, 1984).

(*Articles on Calvin and Calvinism*)이다.¹⁸⁾

이것과 연관하여 1998년 이후 지금까지 칼빈의 사회복지에 관해 한국 칼빈학회 연구지에 게재된 자료들을 분석하여 볼 때 그 연구는 매우 미약하다. 그의 교회론과 목회사역에서 나타나는 직제의 행위문제를 복지실현으로 연결시켜 그 혼적을 부분적으로 살펴볼 수는 있으나 대부분의 논문들은 「기독교 강요」의 분석과 서술에 그치고 말았다.

한국에서 칼빈의 사회복지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논문들은 2004년 “칼빈의 디아코니아”와 2008년 “칼빈의 하나님, 교회, 세상에 관한 이해 그리고 현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관심에 주는 교훈” 등이다. 그 외에 간접적으로 칼빈의 신학을 2005년 “NGO와 조직경영의 가능성”으로 연결시켜 서술한 논문이나 2007년 “기독교 사회복지를 강조한 요한 웨슬리와 그 신학적 배경” 등의 논문들이 있다.¹⁹⁾

최근에 쓰여진 논문으로 “사회복지 사업에서 본 칼빈연구”와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본 칼빈의 목회연구”가 제출되었다.²⁰⁾ 이 논문들은 칼빈의 제2차 제네바 목회를 시작으로 하여 그의 전 사역 과정을 기독교사회복지 목회로 보면서 구체적인 도구로 교회의 직분들과 당회, 그리고 행정기관까지를 포함하여 서술한 후 한국교회에 적용하는 작업을 하였

18) 참조 : R. C. Gamble, (ed.), *Articles on Calvin and Calvinism* (New York & London : Garland Publishing, 1992) ; L. F. Schulze, “Calvin on Interest and Poverty” : Some Aspects of His Socio-Economic View ; Jeanine Olson, “Calvin and Social Welfare : Deacon and the Bourse Francaise”.

19) 이 논문들은 모두 칼빈학회가 발간한 「칼빈연구」에 실린 것들이다. 참조 : 김옥순, “칼빈의 디아코니아”, 「칼빈연구」 창간호, 2004 ; 배경식, “칼빈의 신학에 있어서 NGO의 가능성에 관하여”, 「칼빈연구」 제2집 ; 유태주, “기독교사회복지를 강조한 웨슬리와 그 신학적 배경”, 「칼빈연구」 제4집 ; 손병덕, “칼빈의 하나님, 교회, 세상에 대한 이해, 그리고 현대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관심에 주는 교훈”, 「칼빈연구」 제5집.

20) 전자는 김병완이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칼빈의 사역을 사회복지로 연결시킨 것이며 후자는 조성민,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본 칼빈의 목회연구”, 학위논문 (서울 : 칼빈대학교, 2008)이다.

다. 이는 필자가 언급한 바 있는 칼빈의 개혁을 “교회의 정치화와 정치의 교회화”²¹⁾라고 규정하는 다른 하나의 근거가 된다.

본 논고를 통해 필자는 그의 사회복지 실천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본 후 개혁정신과 함께하는 영광의 신학, 정치사상과 두 개의 정부, 마지막으로 교회의 직임들과 봉사의 직을 논거하면서 칼빈의 교회를 통한 봉사와 사회복지 실현이 어떻게 한국교회에서 적용될 것인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과 함께 살펴보려 한다.

4. 사회복지 실현과 하나님의 형상

칼빈의 사회복지 실현을 이해하려면 사회복지의 대상인 인간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 구성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중생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이웃에 대한 책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1)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의 회복

칼빈은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작품들 가운데 의와 지혜와 선함에 있어서 가장 고상하고 두드러진 실체적인 예증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구별하여 평가하는 것은 인간의 외적인 면에서라기보다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하는 영혼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질그릇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을 뿐 아니라 불멸의 영의 거처로 삼기로 원하셨다.”²²⁾ 비록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지만 그 속에 영원

21) 배경식, “칼빈의 조직 경영이 한국교회에 미치는 영향”, 「칼빈연구」 제4집, 329쪽. 칼빈은 이러한 정치 실현을 통해 ‘국가와 종교가 맞물리는 인습적인 교회’를 구상한 것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의 교회’를 만들도록 하였다. 이 문제는 특히 사회복지 교회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는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

22) Inst., I, xv, 1, p. 359.

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창 1:27).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완전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이며 밝은 오성과 이해력을 물려받았고 그의 의지가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하게끔 정해졌다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물음은 인간의 본성 속에서 계속 특별히 비추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존중되는 것인데 그곳은 (인간의) 마음과 뜻과 모든 감정이 하나님의 질서를 대변한다는 것이다.”²³⁾ 이것은 인간이 윤리적인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며 인간은 스스로는 완전한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깊이 빠지게 된 비참한 멸망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²⁴⁾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성경적 근거는 창세기 1:26~27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된 두 가지 개념들을 발견하는데 그것들은 ‘형상’(형상, εἰκών, imago)과 ‘모양’(모양, ὁμοιωσίς, similitudo) 등이다. 그 외에 창세기 5:1, 9:6, 시편 8:6에도 나온다. 신약성경에서는 우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고후 4:4), 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골 1:15)이라고 한다.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용한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지니고 있다’(고전 11:7)든가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져야 한다’(골 3:10)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²⁵⁾

초대교회는 회랑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인간의 영혼은 신과 같은 형태의 것으로서 가장 신적인 것이며 인간의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요, 인간의 영혼에는 신적인 불꽃이 숨어 있다고 보았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23) Calvin's Commentaries, *Genesis*, vol. I, p. 96.

24) Ins., I, i, p. 63.

25) 김균진, 「기독교조직신학」 II(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86), 55쪽 이하.

형상과 모양을 구별하여 인간이 타락하면 모양은 상실하였으나 형상은 상실하지 않았으므로 타락한 이후에도 인간은 자유의 의지와 이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인간과 동물의 구별됨이라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회랑의 이원론에 근거하여 모양을 다시 형상으로부터 구분해 내는 이분법적인 사고이다.

칼빈의 사상에 근거하여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0문에 의하면 인간의 창조에 관한 물음과 답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혜롭고 의로우며 거룩하게 지으시사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²⁶⁾(창 1:27, 골 3:10, 앱 4:24, 창 1:18)라고 답하고 있다.

칼빈은 루터와 같이 형상과 모양을 구별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 히브리어의 동일한 것에 대해 다른 말로 꾸며 주는 반복법을 들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이 모호해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창세기 1:25의 인간의 창조 시에 ‘그 모양대로’라는 문구를 덧붙여 되풀이했다는 것이다.²⁷⁾ 타락한 후의 인간은 어떻게 될까? 그에 의하면 타락한 후에도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의 파편이 남아 있다고 보았다. 이것이 동물들과 구별되는 점인데, 그러나 그것은 너무도 부패하여 남아 있는 것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기형물로 보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그 형태가 있다고 해도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비록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서 완전히 도말되고 파괴된 것이 아니지만 그 부패가 너무 심하여 남아 있는 것은 무엇이나 무서우리만치 추악하게 일그러졌다. 따라서 구원이라는 회복의 시작은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 안에 놓여 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참되고

26) 한인수 옮김, 「웨스트민스터소요리문답」(서울: 도서출판 경건, 2009), 27쪽.

27) Calvin's Commentaries, *Genesis*, vol. I, p. 93ff. 칼빈은 각주를 통해 “형상은 자연스러운 것을, 모양은 호의적인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했다. 이것은 문법적으로 말하면 중언법(hendiadys, one thing by means of two)이다. 예를 들면 golden cups가 cups and gold인 것과 같다.

완전한 순결한 상태로 회복하여 주는 분이기에 둘째 아담이라고 일컬어진다.”²⁸⁾

칼빈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관시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인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으며 윤리적인 삶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기 때문이다.

2) 자기부정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도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길을 없을까? 칼빈은 그 길을 회개라고 하였다. 회개는 세 가지 의미를 갖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둘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셋째는 자신의 옛 본성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것이다.²⁹⁾ 회개가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라면 그것은 외면적인 행위뿐 아니라 영혼 자체의 변모를 요구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선지자들은 회개하고 새 마음을 가지라고 한다(겔 18:31). 모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신 6:5, 10:12, 30:2, 6, 10)라고 말하였으며 ‘마음의 할례’라고까지 심층적으로 표현하였다. 회개의 참된 성격은 예레미야 4장에 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렘 4:1-4)는 것이다.

칼빈은 회개를 중생으로 보았다. “그리므로 나는 한마디로 회개를 중생이라고 해석한다. 회개의 유일한 목적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거의 도말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는 것이다.”³⁰⁾

사람이 회개를 통해 중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모습에 접근할수록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빛이 난다. 신자들은 이 목표에 도달하기

28) Ins., I, xv, 4. p. 369.

29) Ins., III, iii, 6. p. 131ff.

30) Ins., III, iii, 8. p. 137.

위해 평생 동안 ‘회개의 경주’(a race of repentance)를 해야 한다. 이 경주를 통해 신자들은 성화(sanctification)를 체험하는 것이다. 인간이 회개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중생한 사람 안에 악을 유발하는 연기나는 불씨(a smoldering cinder of evil)가³¹⁾ 남아 있어서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며 자극한다는 것이다.

중생한 사람이 성화를 체험하는 구체적인 길은 무엇일까? 칼빈은 디도서 2장을 근거로 하여 ‘자기부정의 삶’(the life of self-denial)이라고 말한다. 자기 부정의 삶은 불경건과 세상적인 욕심에서 떠나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칼빈의 신학에서 발견되는 유명한 말 ‘세상의 순례자’(the pilgrims in this world)의 삶이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앞으로 있을 영광을 위해 준비하는 세상의 나그네이다.³²⁾

자기 부정의 삶은 이웃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바르게 해 주는데 그것은 ‘남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고’(빌 2:3),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롬 12:10) 것으로, 다시 말하면 ‘진정한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인간이 멸망의 구덩이에서 구원을 받아 양자 됨의 은혜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자비의 언약 안에서 그의 종들이 바르고 성결한 생활로 보답할 것을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들을 기뻐하시며 사랑하신다는 것뿐이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중생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말했다.”³³⁾

31) ‘불씨’라는 말은 원래 라틴어 fomes를 말한다. 이 단어는 원래 ‘불쏘시개’, ‘부싯깃’을 나타내지만 창세기 37:8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꿈으로 인하여 마음속에 품은 미움을 의미한다. 터틀리안이나 어거스틴도 이것을 죄에 대한 자극으로 보았으며 스콜라신학에서는 일평생 완전히 억압하거나 박멸할 수 없는 내면적 활동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참조 : Ins., III, iii, x. p. 139, 각주 19.

32) Ins., III, vii, 4. p. 321, 각주 7.

33) Ins., III, xvii, 5. p. 549.

칼빈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은 모든 다른 피조물에 비해 존경의 대상이 됨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믿음의 근거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은 모든 인간 존재들 안에 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때 윤리적인 삶이 요청됨을 알게 된다.

“성경의 교훈에 의하면 우리는 인간 자체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그에 대해서 존경과 사랑을 표시하라고 한다. 그러나 특히 믿음의 식구들 사이에서 이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갈 6:10). 그러므로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 그가 어떤 사람 이든 간에 당신은 그를 돋지 않을 이유가 없다. 예를 들어 그가 ‘낯선 사람’(a stranger)이라고 하자.”³⁴⁾

칼빈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으로서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것에 기인하며 이것이 율법의 두 팔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지상에서의 순례자의 삶이다. 여기에 사회복지 실현의 근거를 둔다.

3) 이웃을 향한 인간의 책임성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함을 받은 인간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앙의 한가족이 되어 한 지체로서 각자의 책임을 갖는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장으로서 이 세상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공동체임을 가시적으로 보여 준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신앙적 이성과 다스림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보이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 받았다. 그것은 사랑의 실천과 정의의 실현이다. 칼빈에게 이웃을 향한 인간의 책임성은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으로 구분된다.

34) Ins., III, vii, 6, p. 327.

개인적인 책임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작은 자들은 주린 자와 목마른 자, 혈벗은 자와 병든 자, 그리고 옥에 갇힌 자들이다(마 25:35-40).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통해 부자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이웃을 돋기를 거절하는 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며 결국 이것은 신성모독(sacrilege)이다.³⁵⁾

칼빈은 중세 이후 금욕주의 전통에서 내려오는 사상인 ‘가난 자체가 저주이거나 아니면 거룩함이라는 것’을 부정한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모든 사람들이 삶의 풍성함을 갖는 것이다. 가난은 인간의 죄악에 의한 창조질서의 파괴의 결과이다. 인류사회에 상호교통이 잘 유지 되었다면 주고 받음을 통해 동등한 분배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칼빈은 쉽게명 가운데 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출 20:15)를 해석하면서 모든 사람의 소유는 하나님의 분배에 의한 것임을 전제하면서 그리스도의 지체인 구성원들의 사회적인 책임과 연대를 강조한다. 기독교인들이 “이웃에 대해 지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재산을 갈취하는 것이며…… 자신의 소명감에 따라 남에게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수행하지 않는 자는 그들의 재산을 횡령하고 선취하는 것이다”.³⁶⁾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은 무언인가? 그것은 자기부정이다. 자기 부정을 하는 기독교인들은 세상적인 소유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그것은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소속감을 가지며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헌신하는 생활을 말한다. 이것을 칼빈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룩한 봉사의 생활’이라고 규정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이나 의지가 우리의 계획과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 그의 지혜와

35) Calvin's Commentaries, Matthew, Mark and Luke, Matt. 25:40, 116쪽.

36) Ins., II, viii, 45, p. 345.

그의 뜻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관하게 해야 한다.”³⁷⁾

칼빈은 교회의 목회사역과 시의회의 사역을 제네바 시민의 복지를 위한 공적인 사회복지사업으로 이해를 했다. 그의 복지 사역은 제네바에 거주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칼빈 자신처럼 신앙의 자유를 찾아 제네바를 찾아오는 피난민에게도 적용되는 신앙생활과 개혁 프로그램이었다. 칼빈이 1536년 제네바에 도착했을 당시 그 도시의 인구는 대략 만여 명의 인구를 갖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 그런데 그 도시는 1549년에서 1560년까지 피난민의 숫자만 5,00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피난민으로 흘러넘쳤다.

도시의 생활이 전반적으로 변했다. 제네바는 지금까지 정치적인 독립을 갖는 국제적인 도시였으나 이제는 상업과 무역의 도시가 된 것이다. 1536년에는 50여 명의 상인들과 3명의 출판업자들이 있었으나 1550년경에는 180여 명의 상인들과 113명의 출판업자들, 그리고 구두나 금세공, 섬유직공의 동업조합이 결성되었다. 출판업과 섬유방직업이 제네바시의 수출산업이 되었다. 이처럼 개신교 피난민들이 제네바시의 경제생활을 변화시켰다.³⁸⁾

5. 교회의 직임들과 사회복지 사역

칼빈은 에베소서 4:11과 로마서 12:7~8을 근거로 하여 교회 안에 여러 가지의 직분이 있음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다스리시기 위해 쓰시는 교회의 교직제도를 말한다. 이는 노동자가 일을 할 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도구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만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교회 안에서 그 권위와 위엄을 가지셔야 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교회가 운영되어야 한다. 칼

37) Ins., III, vii, 1, p. 314.

38) W. W. Monter, *Calvin's Geneva*(New York : Wiley, 1967), pp. 21-22.

빈이 신약성경을 인용하면서 구체적으로 체계화시킨 교회의 직제들은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 등이다.

1) 목사를 통한 교육복지

주께서 사도들을 파송하실 때 복음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집행하라고 하셨다(마 28:19). 바울은 목사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일꾼, 비밀을 맡은 자”(고전 4:1)라고 한다. 감독에 대하여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리는 자를 책망한다(딛 1:9)라고 하고 있다. 목사의 직은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특수한 기능이 있다. 교회를 다스리고 돌보는 일을 위해 목사가 세워지며 목사는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 부름을 받는다.

목사의 첫 번째 과제는 복음 전파이다. 이를 신앙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사도들은 교회의 창설자로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온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다. 선지자는 어떤 특별한 계시의 은사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들인 우리 시대의 교사를 말하며 목사는 사도에 해당된다.³⁹⁾ 복음 전하는 자는 전도자로서 사도들을 도와 복음전파를 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누가, 디모데, 디도 등과 같은 전도자들로서 70인의 제자들도 전도인들이었다(눅 10:1). 목사를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교사라고도 부르는데 이 가운데 끝의 목사와 교사만이 교회 내의 정상적인 직분이고, 처음 셋은 필요에 따라 부활시킨 특별직이다.

두 번째 과제는 하나님의 대변자이다. 하나님의 권위유지와 회복 교육이다.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일하신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만족치 못하시고 제사장들을 해석자로 세우신 것처럼(말 2:7) 대변자인 목사의 입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 거룩한 회중이

39) Ins., IV, iii, 5, p. 103.

성소 앞에 모여서 제사장의 입을 통해 교리의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믿음의 일치를 얻게 하셨다.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사 59 : 21)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옛 백성들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땅에서 교사들을 세우셔서 천사의 직책을 진실하게 수행하신 것처럼 지금도 인간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사 가운데 사람들의 입과 혀를 성별하여 그들을 통해 자신의 음성이 올리게 하셨다는 것은 특별한 은사이다. 이들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명령과 구원의 교리를 순종하며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의 광신자들은 이 방법에 메이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명적인 옮무에 걸리기도 한다. 다른 일부의 사람들은 자만심이나 거부감 등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독서하고 명상하면서 공중 집회를 멸시하고 설교를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연합의 거룩한 연대를 끊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극악한 오류와 타락한 망상에 빠지게 된다.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이 풍부해지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을 꺼려서는 안 된다.

세 번째 과제는 진리수호의 파수꾼, 즉 청지기와 종이다.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 혹은 ‘하나님의 집’(딤전 3 : 15)으로 부르는 것은 목사를 통해 올바른 말씀의 선포와 주께서 세우신 성례전의 준수가 제대로 지켜져야 함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사역과 수고에 의해서 말씀의 선포가 순수하게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영적 양식과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심으로써 친히 한 가족의 아버지이심을 보이기 원하신다.

목사와 교사가 없이 교회가 유지될 수 없다. 제자 훈련이나 성례집행이나 경고와 권면을 하는 일은 목사가 전담하였다. 교사들은 성경 해석하는 일을 전담하였다. 이것은 신자들 사이에서 교리를 온전하고 순수

하게 유지하려는 것이었다.⁴⁰⁾ 전도자와 사도를 함께 보면 서로 상응하는 두 쌍을 보게 된다. 교사들은 선지자에 그리고 목사는 사도에 해당한다.

선지자의 직분은 그 탁월한 계시의 은사 때문에 두드러졌으며 교사의 직분도 성격이나 목적에 있어서 비슷하다. 사도들은 특별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로서 이들의 사명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였다. 목사들은 맡겨진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도들과 같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다스리시기 위하여 교회에 직제를 두셨다. 이 권위는 오직 그의 말씀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 그들의 입을 통하여 자신의 사역을 이루려 하신다. 이는 마치 노동자가 연장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무의 도움이 없이 친히 일하실 수도 있고 천사들을 시켜서 하실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

바울은 말하기를 인간의 사역은 신자들을 묶어서 한몸을 이루게 하는 힘줄과 같다고 한다. 인간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중요한 힘이 된다. 교회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교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기만 하면 교회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다.

칼빈은 목사의 직을 신중하게 식별할 필요에 대해 언급한다.

2) 장로와 제도적 복지

장로는 신앙과 생활에 모범이 되는 어른으로서 교회를 가르치며 다스리는 사람들을 말한다. 장로(*πρεσβυτέριον*)는 감독, 장로, 목사, 사역자라고 불리기도 한다. 칼빈은 디도서 1 : 5과 1 : 7, 사도행전 20 : 17과 20 : 28을 근거로 하여 감독과 장로는 같은 직책임을 주장한다. 다스리는 사람들은 신자들 사이에서 선택된 장로들이었으며(고전 12 : 2)

40) Ins., IV, iii, p. 4.

각 도시에서 장로들이 자기를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 감독이라 불렸다. 오늘날의 노회에서 시찰장이나 노회장 정도의 직급일 것이다. 이는 계급이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화를 막기 위함이었다.⁴¹⁾ 장로들은 감독들과 함께 도덕적인 견책과 권징을 행하는 일들을 맡았다.

한국교회는 디모데전서 3:1~7에 근거하여 그 자격요건을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고 무흠 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 된 자”⁴²⁾로 규정하고 있다. 직무는 “치리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피며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⁴³⁾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롬 12:8) 할 것을 말한다. 처음부터 각 교회에는 이렇게 경건하고 위엄 있고 성결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선택된 장로회가 있어서 과오를 시정하는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 직분은 한 시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필요하다.

감독과 장로들은 말씀 선포와 성례전 집행에 전력을 다했다. 장로가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된 것은 아리우스의 논쟁이 있은 후 알렉산드리아에서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건전한 교리로 교회를 세우는 것은 감독의 일차적인 의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오래 지속된 원칙이다.

3) 집사와 기독교 복지사역

집사직에 대해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궁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롬 12:8)라는 말씀을 보면 집사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구제하는 일과 궁휼

을 베푸는 일을 했다. 이를 볼 때 교회의 구제 사업을 관리하는 집사들과 직접 빈민을 돌보는 집사들이 있다. 집사라는 말에서 나온 기독교사회봉사(*διακονία*)는 더 넓은 뜻을 가지지만, 성경에서 집사라고 명명되는 사람들은 구제 물자를 분배하며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빈민 구제 금을 관리하는 일을 교회로부터 맡은 봉사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누가는 이들의 기원과 임명, 그리고 직분에 대하여 사도행전에 기록하였다(행 6:1~4).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제외된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여”(행 6:3) 이 일을 맡기라고 신자들에게 부탁을 하였다. 칼빈은 이런 종류의 집사들이 사도들의 교회에 있었고 우리도 본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근거하여 칼빈이 일하던 제네바에는 두 종류의 집사들이 있었다. 구제품을 분배하는 집사들과 병자들을 돌보는 집사들이었다.⁴⁴⁾ 집사라는 말은 사도행전에는 없고, 빌립보서 1:1과 디모데전서 3:8~13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일곱 사람을 장로라고 전자와 구분하여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⁴⁵⁾

한국교회는 교회 안에 남자 대비 많은 분포의 여성을 갖고 있으며 이들의 직책은 집사와 권사, 그리고 일부가 장로로서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지만 언제부터인가 집사는 교회 내에서 봉사의 직을 수행하고, 권사는 신앙의 어머니로서 교우들을 심방하고 위로하는 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장로는 행정의 참여자로서 교회의 봉사와는 거리감이 있다. 실제로 교회에서 집사로 열심을 다하던 사람들이 장로가 되면 교회봉사의 태도가 바뀌는 예들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된다. 최근 들어 한국교회는 현법

41) 상계서, IV, iii, p. 8.

42)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전계서, 196쪽 이하.

43) 상계서.

44) 참조 : 상계서, IV, iii, p. 8. 각주.

45) 상계서, 참조 : T. M. Lindsay, *The Church and the Ministry in the Early Centuries*, 115쪽 이하.

을 개정하면서 장로, 권사의 피택 자격 요건에서 나이를 모두 30세로 낮추어 집사와 권사, 장로의 직이 마치 일종의 서열을 갖는 계급화가 되어 버린 점이 아쉽다. 과거처럼 권사는 “무흠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 한 45세 이상 된 여신도로서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⁴⁶⁾가 적합하다.

6. 행정기구를 통한 사회복지 실천

1) 컨지스토리

(1) 컨지스토리란?

컨지스토리(Consistory)는 칼빈이 제네바에 재입성한 1541년 이후 제네바의 효율적인 개혁을 위해 설립한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장로회 법정기구이다. 제네바시에 거주하는 목사, 장로 12명으로 구성되었는데 한국의 교회제도로 말하면 노회나 총회의 재판국이다.

컨지스토리의 설립은 마태복음 18:17에 근거하며 칼빈의 신학 가운데 교회의 치리는 목사와 평신도 연합의 대표인 장로가 한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 주는 기관이었다. 목사들은 제네바 목사회에서 파송되어 직무상 참석을 하였으나 장로들은 매년 2월에 25인 소의회에서 2명, 60인 회의에서 4명, 그리고 200인 회의에서 6명을 뽑았다. 자격요건은 “선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자들로 흡집을 것이 없고 의심 받을 것이 없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적인 신중성을 갖는 자라야 했다.”⁴⁷⁾ 이는 매우 성경적인 의미를 갖는다.

46)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상계서, 200쪽.

47) 이정숙, “출교에 관한 존 칼빈의 신학과 제네바 컨지스토리의 활동”, 한국칼빈학회, 「최근의 칼빈연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참조: 1541년 Church Ordinances.

(2) 영적 교정 복지기관

컨지스토리의 역할은 교회의 권장을 성도의 표지에서 찾는 기관이다. 성도의 표지로는 신앙의 고백과 삶의 모범, 그리고 성례전에의 참여인데 개인적으로 종교적이며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컨지스토리가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한 후 출교를 결정하였다. 여기에서 거론된 출교는 종교적 테러에 해당하는 대출교가 아니라 성만찬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하며 그 대신 설교를 더 듣게 함으로써 회개를 통한 회복의 기간을 단축시키려 하였다.

교회가 이렇게 출교를 명한 것은 우선적으로 그리스도가 세우신 이제도가 모독을 받지 않도록 하며, 다음으로 출교를 당한 자들에게 자신을 고치는 회개의 기회를 주며, 마지막으로 교회 내의 성도들에게 전염되어 타락하지 않도록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칼빈시대의 컨지스토리와 오늘 한국의 장로교회의 노회나 총회 내에 존재하는 재판국⁴⁸⁾과 구조는 같으나 기능은 상당히 변질된 것으로 보인다. 컨지스토리는 오히려 개교회 내에 존재하는 당회의 기능과 같은데 역시 칼빈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변모되었다.

한국의 장로교회에 있는 당회, 시찰회, 노회, 그리고 총회에 이르기 까지 칼빈이 의도한 출교의 삼중적인 기능은 개인의 신앙보다는 교회의 갈등 문제, 이단 시비, 그리고 목회자의 부도덕성 정도를 다를 뿐이다.

한국교회는 지난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교회의 당회를 통해 개인의 신앙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면에서 치리라는 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예 헌법 책에서 삭제시켜 버렸다. 기독교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야 학습을 받던 제도마저 삭제해 버렸다. 지금은 누구나 원하면 간단하게 세례를 받는다. 신앙의 내용을 아는 것은 자신의

48) 노회의 총회 재판국 구조는 노회는 7인 이상 15인 이내의 목사와 장로로 구성하고 총회는 15인 이내로 하되 그 과반수는 목사로 규정하였다. 참조: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4).

개인 문제라고 간주해 버린다. 물론 당회가 이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형식화된 면이 없지 않다. 이점이 한국장로교회가 칼빈의 컨지스토리 제도로부터 배우며 회복해야 할 점들이다. 칼빈은 컨지스토리 제도를 통해 영적 교정사회복지를 실현하였다.

1555~1556년 컨지스토리의 활동에 대해 조사된 바에 따르면⁴⁹⁾ 모임 자체는 각각 55회와 57회 모였으며 출교의 이유로는 1555년에는 신성 모독과 성적 방종, 구교적 신앙 실천, 가정문제가 대부분이었는데 그 이듬해 1556년 심방을 통해 얻어진 결과로는 오히려 성적 방종과 구교적 신앙 실천이 뒤바뀌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제네바의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장로회 법원의 성격을 갖는 컨지스토리는 무섭고 두려운 사회법적인 기능을 갖는 기관이 아니라 심방을 통해 상담과 중재, 교육의 기회를 강화 시킨 신앙 자문기관인 것을 알게 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 받은 주의 백성들이 책임 있게 살도록, 그래서 결국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영적인 교정 복지기관이었다.

2) 교회법령과 구빈원

칼빈이 1541년 제네바시의 간절한 요청으로 재입성할 때 교회의 훈련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확고하게 표명한 것을 보게 된다. “만약 여러분들이 나를 당신들의 목사로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생활의 무질서를 고쳐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망명생활을 하는 나를 다시 부르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가운데 만연해 있는 범죄와 성적 방탕함을 청산하십시오. …… 내 생각에 복음의 가장 큰 적들은 로마의 교황도, 이단도, 유혹하는 자들도, 독재자도 아니고 바로 ‘나쁜 그리스도인들’

49) 상계서, 326쪽 이하. 이정숙은 1997년 컨지스토리에 연관된 “칼빈의 제네바에서의 출교와 회복”에 관한 제목으로 학위 논문을 제출하였다. 참조 : Excommunication and Restoration in Calvin's Geneva, 1555-1556, Ph. D. dissertation(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1997), pp. 29-34.

입니다. …… 선한 행위가 없는 죽은 믿음이 무슨 쓸데가 있습니까? 진리 자체인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 사악한 삶이 깔려 있고 행하는 것이 말한 것을 부끄럽게 한다면 나를 이 도시에서 내치셔서 나로 새로운 망명지에서 고통의 쓰라림을 다스리게 하소서. 아니면 준엄한 교회의 법이 교회를 다스리게 하소서. 순전한 권징(훈련)을 다시 세우소서.”⁵⁰⁾

이 교회 법령에 의하면 제네바 시립병원에 관해 말하고 있는데 교회의 복지 시설인 구빈원(Spital)은 현대식 병원의 전신으로서 병든 자가 죽기 전까지 간호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먹여 주는 사회사업구호기관이었다. 이 병원은 일할 수 없는 병자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아나 과부, 기타 빈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과 여행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소를 갖추고 있었다. 이곳에서 일하는 자들은 집사들로서 “책망할 것이 없으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딤전 3:1-7)으로서 장로의 선출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⁵¹⁾

3) 대학의 설립과 교육복지

칼빈의 교육사상은 「기독교 강요」 제4권 5장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는 이곳에서 ‘교회를 통한 교육의 가치와 그 의무’를 논하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엡 4:10-13)이라는 성경을 인용한다. 그가 주장하는 바는 “옛 백성들을 천사들에게 맡기시지 않고 땅에서 교사들을 세워서 천사의 직책을 진실하게 수행하도록 하신 것과 같이 지금도 인간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신다”⁵²⁾는 것이다.

50) 중인 : Theodore Beza, Life of Calvin, I, pp. 25-26, 이정숙, 전계서, 320쪽.

51) 김옥순, “칼빈의 디아코니”, 칼빈학회, 「칼빈연구」, 창간호(서울 :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210쪽.

칼빈의 제네바에서의 교육은 어린이를 위한 교리교육에서 시작된다. 칼빈 당시 제네바의 인구는 대략 10,000명으로 추산되는데 아직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해서 독립을 위해서는 주변의 국가들과 국제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종교의 자유를 찾아 프랑스에서 몰려드는 피난민들로 인해 정치, 경제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 일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 칼빈은 사회사업의 공공 부분의 주체인 국가와 민간 부분인 교회의 협조를 중요하게 여겼다.

칼빈은 우선 어린이를 의무적으로 학교에 보내도록 하는 법령을 1536년 시의회에 제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학교에서 일반 과목과 교리교육을 시키며 부모가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지 않을 때는 시민권을 박탈한다는 사실을 목사와 장로들이 가정방문을 통해 전달했으며 시민들은 성경을 실생활에 적용하도록 권장하여 6월에 설립하였다.⁵³⁾ 그곳에서 주장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배움의 기초가 되며 제네바 대학교는 성직자뿐 아니라 시민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⁵⁴⁾고 역설하였다.

제네바 대학이 끼친 영향은 우선 수많은 학생들이 유럽에서 제네바로 몰려와서 칼빈에게서 사사를 하게 하였으며 이중에는 스코틀랜드의 개혁자가 된 존 낙스도 있었다. 이를 근간으로 한 세계적인 유명대학들이 설립되었는데 이들은 화란의 레이든,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영국의 캠브리지, 미국의 하버드나 예일,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 등이다.

52) Ins., IV, i, 5.

53) 제네바 대학의 모체가 된 제네바 학술원(Academy of Geneva)은 1559년 6월 5일 성 베드로 성당에서 시의회 의원들과 목사들 6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헌납되었다. 신앙적으로 헌신된 과학과 종교 교사 10여 명에 의해 문법과 논리, 수학, 물리, 음악, 고대언어가 집중적으로 강의되었다. 칼빈은 그의 후계자 베자와 함께 신학을 가르쳤다. 제네바 학술원이 목표하는 바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는 시편 111:10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참조 : 디모데 토우, 전계서, 104쪽 이하.

54) 김승연, “요한 칼빈과 교육독희”, 칼빈출생500주년기념사업위원회, 「칼빈출생500주년 기념학술세미나 책자」(전주 : 전주칼라인쇄소, 2009), 58쪽 이하.

4) 궁핍함에서의 이웃사랑 실천

칼빈의 사회복지를 위한 근본정신은 궁핍함에서의 이웃사랑 실천이다. 이를 위해 세운 기관이 ‘프랑스 기금’으로 번역되는 부르즈 프랑세(Bourse Francaise)이다. 이 기관은 자신의 친구인 데이비드 부산톤(David Busanton)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프랑스 지역에서 제네바로 넘어오는 난민들인 가난한 자들을 위해 써 달라고 넘겨준 유산으로 세운 프랑스 출신을 위한 개신교 난민 구호기관의 공식명칭이었다.

이 기관이 세워진 동기는 제네바 원주민들이 프랑스 난민들을 달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민 구호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절실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네바로 몰려드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의식주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병원, 학교, 직업 알선, 상담, 그리고 신앙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종합사회복지기관의 역할을 했던 곳이 부르즈 프랑세(Bourse Francaise)이다. 자국민의 문제들을 자국인의 기금과 자국인의 환경을 만들어 해결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이탈리아에서 온 신앙의 동지들을 위한 이탈리아 기금이 형성되었으며 칼빈의 사후인 17세기에는 스위스, 영국, 스웨덴, 폴란드 등지에서 온 사람들을 위한 구호기관들이 세워져 명실 공히 제네바는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도시이자 세계적 구호기관들이 설립되어 정착하게 되었다.⁵⁵⁾ 지금도 제네바에는 인권과 구호와 연관된 국제기구들이 많이 남아 있다.⁵⁶⁾

55) 참조 : 김옥순, 전계서, 213쪽 이하.

56) 제네바에는 유엔 유럽본부(UNOG)를 비롯해 모두 22개의 굽직한 국제기구와 170개의 각종 비정부기구(NGO) 등 거의 대부분의 국제기구들은 제네바에 몰려 있다. 대표적인 기관들은 다음과 같다. 국제연합(UN), 세계무역기구(WT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무역기구(ITO), 유엔아동기금(UNICEF), 국제적십자기구(INC) 등이다. 이렇게 스위스에 국제기구가 몰리는 이유로는 첫째, 스위스 정부의 국제기구를 위한 기여금 보조와 지속적인 지원, 둘째, 스위스에 위치한 국제기구들에

그 이외에 칼빈은 제네바에 거주하는 다양한 계층들을 아우르기 위해 개혁을 단행하면서 교회법령들을 통해 남녀 간의 기본 평등에 근거한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향상시키기 위해 성경해석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적용시켰다.

그의 경제문제에 관한 성경해석과 적용은 중세의 전통적인 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특히 이자와 고리대금업에 관한 부분은 유럽의 경제생활을 분석한 이후 결론을 내리기를, 긴급한 필요에 의해 사용되는 대출금과 생산을 위한 대출금은 다르다는 것이었다. 그는 구약성경에서 금하는 고리대금은 전자와 연관된 것이지 후자와는 다르다고 해석하였다(레 25 : 36-37 ; 신 23 : 19-20, 참조, 농 6 : 35). 칼빈의 성경해석에 관한 충실성은 성경을 단순히 인용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성경의 저자가 그 당시의 상황과 연관을 지어 어떻게 해석했는지 파악하는 것이었다. 칼빈에 있어서 대출금은 이웃의 필요에 의해 사랑과 상호 책임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계속되었으며 이자가 부과되지 않았다.

투자와 생산을 위한 대출금은 합법적으로 이자를 지불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에 관해서는 몇 가지의 규정을 정하였다. 필요에 의해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이자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는 성경의 황금률을 대출에 적용시킨 것이다. 빌린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자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이다. 이렇게 이자와 고리 대금업은 공의와 자선에 배치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을 위해 용인했다.

이는 당시 제네바가 국제 상업도시로의 탈바꿈을 하는 것을 이해한 경제부분에서의 선각자적인 태도이다. 농경사회에서 이자를 받는 대금업을 죄악시하던 관행을 깨는 것이었다. 칼빈은 프랑스에서 넘어온 다양한 기술자들로 하여금 산업을 발전시키게 하였으며, 특히 이들을 통

50년 무이자 차관이라는 인센티브 제공과 재정지원 외에도 국제기구와 그 지원을 위한 특권과 면책을 위한 법령 조항의 정비의 추진 등이다.

한 시계 산업은 세계적인 스위스 시계를 제작하게 하여 이를 통해 스위스의 부를 창출하게 한 경영인이기도하다.

7. 결언

본문에서 제기된 칼빈의 개혁정신과 사회복지에 관한 논의는 그의 「기독교 강요」(*Institutio religionis christiana*)의 각 장, 절에 스며들어 있으며 그 책의 완성판인 1559년 제4판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의 기독교 강요의 특색은 한편으로는 교부들의 신앙을 계승한 변증적 경건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던 당시의 천주교와 이단적인 사상들에 적용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목회경험을 제네바가 갖는 사회적 변화 현장에 적용시킨 목회의 내용을 집대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칼빈은 1536년부터 시작하여 1564년까지 제네바를 성공적인 개혁의 도시로 변화시킬 때 많은 저항과 도전 속에서 자신이 부여 받은 사명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의 정신으로 다하였다.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그는 에베소서 4 : 11과 로마서 12 : 7~8을 근거로 하여 여러 가지의 직분을 교회 내에 두었다. 목사와 교사, 장로와 집사를 말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 쓰시는 교회의 교직제도를 말한다. 이는 노동자가 일을 할 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도구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를 하였다.

칼빈은 목사와 교사를 통해 신앙에 근거를 둔 교육복지를 시행하였으며, 장로를 통해서는 신앙생활을 규정하는 제도적 복지를, 그리고 집사를 통해서는 전반적인 기독교사회복지의 일을 감당하게 하였다. 이를 제네바시에 적용한 것이 컨지스토리(consistory)와 구빈원, 그리고 부르즈 프랑세(Bourse Francaise) 등이다. 컨지스토리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교회법정으로서 오늘의 용어로는 재판국을 말한다.

칼빈은 제네바시를 개혁하면서 시의회와 잣은 마찰을 갖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개신교신앙을 생활화함으로써 많은 지지자들을 얻게 되었으며 특히 조직화된 구빈원과 부르즈 프랑세(Bourse Francaise)의 운영은 제네바 시민들에게서뿐 아니라 각국에서 이민 온 피난민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종합 사회복지 기관이었다.

칼빈의 사회복지는 단순히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며 행복한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사회복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소멸되어 잔재만 남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주어진다. 그리고 그 은혜는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사랑의 실천과 공의의 실현에 두었다. 죄악으로 무뎌진 양심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칼빈은 자기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자기부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여기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장차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는 세상의 나그네가 된다는 것이다.⁵⁷⁾

한국교회는 당회의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 또한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장로 법정의 기능을 다하도록 인정하고 협조해야 한다. 집사는 칼빈이 제시한 대로 교회의 사역을 현신적으로 수행하는 집사와 구제하는 집사로 나누어서 각자의 일을 전문화시켜 자신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 지역사회에 유익이 되도록 한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개신교인들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지도자의 문제이다. 결국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무리한 성전건축과 목회자 자녀세습, 당회 안에서의 갈등과 신뢰

의 부족, 셀 수 없이 많은 교파분열로 인해 교인들은 개인적으로 사이비 이단종파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도 교회는 이 일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칼빈을 통해 그 해결점을 찾아보면 그는 제네바시에 거주하는 시민들과 이주민들에게 교회 내부적으로는 복음전파인 설교와 교리교육을 통해 개신교가 믿고 추구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 주었으며, 외부적으로는 개신교에 동조하거나 반대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문제뿐 아니라 삶의 문제를 책임지는 근엄한 목회자로서 사회복지 사업을 통해 제네바시를 성시로 변화시킨 경영인이 된 것이다. 여기에서 법적으로는 컨지스토리가 구호사업으로는 구빈원과 그리고 부르즈 프랑세(Bourse Francaise)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여 종합 사회복지 기관을 만들어 내기까지 했다.

칼빈출생 500주년을 지나면서 우리는 그가 즐겨 사용하던 휘장에 새겨진 말을 주의 깊게 들어 볼 필요가 있다. ‘주님의 사역은 신속하고 성실하게’(Promte et Sincere in Opere Domini)이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불타는 자신의 심장을 드린다’는 그의 각오는 오늘을 살아가는 칼빈의 후예들에게 다시 요청되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학의 순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길이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며 세계 속의 한국교회를 자리매김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57) Ins., III, vii, 3. p. 321, 각주 7.